

내니 두려워 말라

It Is I; Don't Be Afraid

요한복음 6:16-21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2년 4월 29일 설교

¹⁶저물때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¹⁷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¹⁸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¹⁹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²⁰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²¹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갔습니다. 갈릴리 바다 또는 호수라고도 하지요. 팔레스타인 땅 가장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는 호수입니다. 처음 이름은 긴네렐이었습니다. 호수 생김새가 현악기 하프 곧 킨노르하고 비슷하다 해서 킨네렐이 되었습니다. 시편에서 “비파야, 수금아” 할 때 수금이 이 킨노르입니다. 찬양할 때 빠질 수 없는 악기지요. 호수 주변에 게네사렐이라는 마을이 있어 게네사렐 호수라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이 호숫가에 신도시를 하나 만들고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이름을 따 티베리아라 불렀는데 그 도시 때문에 호수도 디베라 바다라 부르기도 합니다. 호수 크기는 우리 그리니치 타운 크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호수 서쪽은 오백 미터 정도 되는 산으로 싸여 있고 동쪽은 골란고원으로 이어지는 고원 지대여서 높은 언덕 가운데 폭짜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물이 아주 잔잔합니다. 그런데 동서는 높은 지대인 반면 남북으로는 아프리카까지 길게 이어지는 동아프리카 지구대에 속했기 때문에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부느냐에 따라 기후가 급변합니다. 특히 예기치 않은 돌풍이 불 때가 많고 그러면 호수에는 아주 높은 파도가 일어납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람하고 파도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 날 낮에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여자하고 아이는 빼고 오천이니까 다 치면 적어도 만 명은 넘었을 건데 한 아이가 준비해 온 적은 음식으로 예수께서 이적을 일으키셔서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는지 먹고 남은 음식을 모았더니 열 두 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이 분을 왕으로 모시자 했습니다.

사람은 뜻을 따라 삽니다. 먹어야 안 죽으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잘 먹었다고 보람되게 살았다 하지는 않습니다. 뜻이 첫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뜻을 찾을 생각은 않고 먹는 문제에만 매달립니다. 어디가 돈이 더 많고 뭐가 남들 보기에 더 멋져 보이고 이런 걸 따집니다. 예수님에게 보인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 주셨는데 그냥 안 아프게 되는 그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 사람의 진짜 문제가 뭔지 가르쳐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다시 말해 죄를 씻고 영원히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보다 병 고치는 능력, 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시는 능력,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는 능력, 그런 데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사람들과 예수님

만 명도 넘는 사람이 이 날 갈릴리 바닷가에 모인 것도 사실 예수님의 그런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데 그 능력에 놀라 모여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올 때마다 “와!” 하고 고함을 질렀겠지요? 손뼉을 친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뭐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복이 아니고 오히려 영으로 가난한 것, 슬피 우는 것이 복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을 꼭 믿고 바른 길을 찾아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다음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먹이신 것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그들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양이 목자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겠지요? 안 잡아먹혀도 굶어죽습니다. 목자가 있어야 풀 있는 곳으로 데려다주고 또 물을 만들어 주기도 할 텐데 양은 어리석어서 목자가 없으면 갈 바를 몰라 그냥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는 사람

들이 불쌍해 먼저 뭘 하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막 6:34). 몸을 살리는 양식 말고 영혼을 살리는 양식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밥도 먹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은 다음 밥을 먹으면 그 밥도 말씀대로 잘 받아먹을 수 있으니 그러셨지요?

그런데 음식을 다 먹은 다음 사람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분이야 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가 틀림없다, 했습니다. 말은 맞지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구세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비는 대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정치적인 관심이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려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얼마든지 건져주실 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 곧 죄에 빠져 신음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해 주시는 영생복락의 구원이었습니다.

주님은 안 계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뿌리치고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냥 가신 게 아니고 사람들을 먼저 다 돌려보내신 다음 산으로 가셨습니다. 오천 명을 먹이신 다음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오천 명을 먹이신 식사는 점심이 아니라 저녁이었습니다. 그렇게 다 먹이신 다음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고 사람들을 돌려 보내는 일은 예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일을 많이 하셨지만 아마도 음식 나르는 일을 제자들이 맡아 했으니까 수고했다고 배려해 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다 보내신 다음 혼자 산으로 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쳐도 못 알아들으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산으로 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아마 답답한 마음을 쏟아 놓으셨지요. 또 어리석은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을 겁니다.

바로 그 시간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만 먼저 배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는데 숙소는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있었습니다.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야 되니까 호수를 가로질러 가야 됩니다. 배가 벌써 호수 안쪽으로 많이 들어간 때였습니다. 오천 명을 먹이느라 시간이 많이 갔는지 이 때가 시간으로 밤 사경, 그러니까 새벽 네 시쯤 되었는데 갑자기 돌풍이 들이닥쳤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안간힘을 다해 노를 저었습니다. 십 여리쯤 갔다 했는데 십리가 약 사 킬로미터니까 거의 호수 한가운데였습니다. 바람이 아무렇게나 분개 아니라 맞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노 젓기가 고통입니다. 가야 할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 노를 아무리 저어도 제자리걸음입니다.

그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다가 바람 때문에 고생하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산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건 눈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랑이 많으셨기 때문입니다. 고생하는 모습이 보기 안 되어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제자들이 바다 한 가운데 있으니 그냥 물 위로, 바람 불고 파도도 치는 그 바다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겁이 덜컥 났습니다. 유령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렇게 물 위로 걸어오겠습니까? 모습은 분명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반가움보다 무서움이 앞섰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니까? 아픈 사람들 다 고치신 분이요 만 명 정도는 가볍게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도 겁이 난 이유는 그 날 있었던 일을 깜빡 잊었기 때문입니다 (막 6:52). 주 예수의 능력을 잠시 잊었습니다. 아마도 파도와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겠지요. 여차하면 목숨을 잃을 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위기에서 주님을 생각지 못했으니 그건 믿음이 약해진 겁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령인 줄 알고 고함을 지르는데 주님이 “나다” 하십니다. 모습만 보일 때는 유령, 팬텀일까 싶어 무서웠는데 목소리까지 들으니 확실히 주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저도 물 위로 걸어도 될까요?” 하고 여쭙었더니 주님께서 그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가는데 한 발 두 발 정말 물 위로 걸어집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살려 주세요!” 하고 고함을 지릅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그랬다 합니다. 베드로 눈 좋지요? 니고데모는 못 본 바람을 베드로는 보았습니까? 바람에 일어나는 물결을 보았다는 말이겠지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지 못해 두려웠습니다. 주님이신 걸 안 순간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배로 모셨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멎었습니다 (마 14:32; 막 6:51). 파도도 당연히 잦아들었겠지요. 그런 다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께서 배에 타시자마자 배가 잘 달려 얼마 안 되어 목적지 가버나움에 닿았다는 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였으면 몇 마일 더 남았으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신 사건은 마태, 마가, 요한 세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각 본문이 강조하는 바가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우선 제자들이 처한 첫 번째 상황을 “날이 이미 어두워지고, 예수께서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않았다” 하고 설명합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어떻습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어둠 가운데 길을 가려면 안내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예수께서는 아직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니다. 본문에 담긴 뉘앙스는 예수께서 진작 오셨어야 되는데 아직 안 오셨다 해서 약간의 긴장을 담고 있습니다. 계셔야 할 분이 안 계시니 불안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곧바로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첫 번째 상황에서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일어났습니다. 원문은 잠이 완전히 깬다는 말입니다. 잘 자던 바다가 잠을 깨고 일어났으니 큰 파도가 인 겁니다. 파도와 싸우며 어렵사리 노를 저어 십여 리를 갔습니다. 호수 폭이 이십 리입니다. 호수 한 가운데 왔습니다. 폭풍 가운데 몸부림을 치며 노력한 결과 더 큰 위험에 빠진 셈이지요.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이 오셨습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주님이 안 계셔서 고생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끝났습니다. 혼자 기도하러 가셨다고 제자들을 버려두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고생하는 제자들을 멀리서 보시고 서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반가운 마음이 안 생기고 오히려 두려움이 생깁니다. 믿음이 없어 그렇다 했지요? 우리 마음에 아직 불신앙과 죄악의 찌꺼기가 남아있습니다. 나를 도우러 오셨지만 그 도움을 받는 나는 더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신 걸 확인하는 순간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의심이 사라지면 믿음이 남는 게 아니라 기쁨이 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쁨 가운데 주님을 배로 모셨더니 그렇게 괴롭히던 바람도 멎고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도 금방 닿았습니다. 네 번째 상황입니다. 기승전결로 하면 곁에 해당됩니다. 파도 속에서 몇 시간을 사투를 벌였는데 주님이 타신 뒤로는 뱃길이 즐거워져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래서 본문도 마치 주님이 타시자마자 금방 닿은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살면서 겪는 고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은 한 사건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의 한 전형으로, 한 보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겪은 그 어려움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오늘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상황하고 기, 승, 전, 결 모든 면에서 면에서까지 닮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영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사건 그 자체보다 사건의 뜻을 더 강조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바람이 불기 전에, 파도도 치기 전에, 문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왜요? 어두워졌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로 어두워졌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안내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세상 살면서 다른 거야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약속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가 죄 때문에 신음하고 그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반드시 계셔야 할 분입니다. 밥은 좀 굶어도 주님만은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 곁에 늘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죽음 가운데 있을 것이며 죄가 가져오는 온갖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도 영원한 저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는 자리가 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안 계셔도 그만인 듯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다는 아직 잔잔합니다. 노를 저으니 배가 잘 나갑니다. 노가 다 됩니까? 야마하 단 사람도 많지요. 목적지도 눈에 보입니다. 금방 닿을 것 같지요? 그런 사람도 세상에 있습니다. 복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지나서 닿는 항구가 어디겠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 못 했는데, 내가 어제도 짓고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지을 죄가 그냥 별 것 아닌 듯 사라질 게 아닌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항해가 끝나면 영원한 멸망과 저주의 항구에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복입니까? 저 사람 참 편하게 잘 산다, 돈도 많고, 뺨도 좋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구나 싶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안 계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닥친 폭풍우가 복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면 영원히 해결도 못 하고 그대로 멸망입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닥친 덕분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되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바다가 잠을 깨 나한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게 복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경우는 정말 위기가 바로 기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 곁에 속히 오셨습니다. 어려움 덕분에 주님이 더 서둘러 오셨습니다. 우리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시는 주님 아닙니다. 멀리서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참 재미있지요? 문제가 곧 해결입니다. 문제가 있는 줄 아는 순간 답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는 신비로운 법칙입니다.

처음 만나는 두려움

그런데 도우러 오신 주님이 무서웠습니다.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만약 다른 배에 야마하를 달고 오셨다면 안 놀랐겠지요. 물 위로 걸어 오셨습니다. 주님이시기에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 내 머리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겁부터 났습니다.

반가워해야 할 순간에 거꾸로 겁을 먹습니다. 왜요? 내 죄가 생각나니까요. 나를 도우실 이 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서면 내 모든 죄가 생각이 납니다. 고통 중에 주님을 만나면 모든 고통의 원인인 죄가 생각나 두려워집니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지요? 사람 눈은 속여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벌은 죽음 아닙니까?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이걸 실존적인 불안이라 합니다만 뭐라 부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주님을 익히 알고 있던 제자들도 무서울 정도였다면 주님을 몰랐던 사람이 주님을 처음 만날 때는 얼마나 더 그럴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돈을 떼이기도 하고 사업이 안 돼 빚더미에 앉기도 합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어 속이 썩고 식구나 친척하고 오해가 생겨 틀어지고 욕심 때문에 싸움도 하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큰 사고를 당하거나 심한 병에 걸려 낙심하기도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되느냐 하고 원망도 합니다. 그런데 그 때가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 어려움을 다 알고 가까이 와 계십니다. 와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안심해라!” 나다, 너희의 스승, 너희의 구세주, 너희가 어려움 가운데 고생하는 걸 보고 도와주러 온 나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 다음 기다리십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을 보고 무서워하거든요. 도움이 필요해 손은 내밀었는데 이 분이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확신이 안 섭니다. 예수 믿었다가 속으면 어떻게 하지 겁도 납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눅 12:49). 죄가 가져온 불안이 우리 인간 사회를 그렇게 어지럽힙니다. 제 친구도 서른 해 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랬습니다. 대학 때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불교를 믿던 집안에서 장남이 예수를 믿었으니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예수 때문에 아들을 잃었다 하시고 누나하고도 원수가 됐습니다. 예수를 처음 만날 때는 이렇게 두려움과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그렇지만 주님이신 걸 분명히 깨닫는 순간, 이 분이 정말 내 구주시라는 걸 아는 순간,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이 건 경험하지 않고는 말로 설명이 안 되지요. 아직도 확신이 잘 안 서지만 일단 이 분밖에 나를 도우실 분이 없다는 걸 알고 주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순간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기쁨이 밀려옵니다. 왜 그럴습니까?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이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친 아들이 이 세상에 보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인 줄 모를 때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깨달을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요일 4:18). 왜 그럴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이제는 벌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죄 때문에 다시는 고생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죽는 것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사랑을 알았습니까? “나다” 하실 때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순간 알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목자요 우리는 다 주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 이 분이 내 목자이신 줄, 내가 그분의 양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성경에서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못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 또 성경을 읽어 주님 음성을 듣고 알았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제 친구도 처음 예수 믿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는데 얼마 뒤 누나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구기에 착한 내 동생을 이렇게 미치게 만들었나 싶어 교회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까지 전도해 이제는 온 집안이 예수님을 모신 배가 되어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을 주님 안에서 다시 찾고 딸도 찾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나 자신도 찾아서 이제는 기쁨 넘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오실 때 우리 삶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다 세상 살면서 바라는 것 많지요. 뜻하는 것 이루고 싶은 일 참 많은데 안 됩니다. 왜요? 맞바람이 불니다. 거세게 불니다. 밤새 노를 젓지만 헛짓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시

니 내 욕심이 사라지고, 인생의 참 뜻을 발견합니다. 허세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멋진 인생,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 언제 그랬느냐는 듯 바람이 잦아들고 평화롭게 노를 젓는데 어느 새 목적지에 닿습니다. 빨리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즐겁게 보람되게 인생을 살고 죽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항구에 닿게 된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바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사는 인생의 바다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는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납니다. 불행이 아니고 다행입니다. 복입니다. 그 어려움이 우리를 주 예수께 인도하였고 바다의 파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더 큰 어려움 곧 우리 실존의 두려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걸 기뻐하고 찬송하는 달이 바로 사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배를 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배고, 우리 직장도 배고, 내 교우관계도 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내 마음도 배와 같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주 예수를 내 배에 모시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면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주신 그 목표를 멋지게 완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랑 같이 주님을 모시고 배에 탄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호수라면 우리는 그 호수를 긴네렐 호수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수금처럼 생긴 호수, 비파야, 수금아, 하고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그런 인생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권수경 목사)